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6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년 하반기 뉴스레터

- |           |               |                |           |                      |
|-----------|---------------|----------------|-----------|----------------------|
| <b>학교</b>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5 석·박사과정       | <b>동문</b> | 8 동창회                |
| <b>소식</b> | 2 행사/학술/연구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b>소식</b> | 9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
|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7 시민환경대학       |           | 10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동정 |
|           | 4 교수동정        |                |           | 11 동문홍보              |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3
	2. 행사/학술/연구	9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3
	4. 교수동정	24
	5. 석·박사과정	28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1
	7. 시민환경대학	34
동문소식	8. 동창회	35
	9.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38
	10.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동정	39
	11. 동문홍보	43

## 학교소식

1

###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015년 여름학기 DMZ GLocal Fair

환경계획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통일기반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8월 10~14일 동안 환경대학원 교수 6명과 석박사과정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65명이 참여한 DMZ 글로벌 페어(GLocal Fair) 행사를 진행하였다. 글로벌 페어 행사의 목적은 접경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철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DMZ 철원'의 이미지를 벗어나 철원 본래의 장소성을 회복하면서 일상적 정주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젊은 세대에게 DMZ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래자원으로서 DMZ를 재인식하고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이다. 2015년 6월 중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 철원군청 및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오리엔테이션을 거치면서 약 3달 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였다.



활동 내용은 크게 '통일촌 유곡리를 대상으로 하여 유곡리 주민의 일상적 삶을 통한 일상화 장소성 발굴과 유곡리 브랜딩', 커뮤니티 디자인 빌드와 철원의 미래 비전 구상, '철원군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멘토링'이었다. 첫 번째 활동은 민통선 이북(민북)에 위치한 통일촌 유곡리를 대상으로 민북 마을의 경관 및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독특하고 애환 어린 삶을 바탕으로 유곡리를 브랜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활동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만남의 장소인 동송 전통시장내에 환경대학원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평상마루를 설치한 후, 이곳을 통일에 관하여 논의하는 소통의 장(場)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이곳에서 다양한 주민그룹을 대상으로 통일시대에 대한 커뮤니티 주민참여형 통일 비전을 구상하였다. 마지막 활동으로 철원군 중·고생을 대상으로 김화, 갈말, 동송 3 곳에서 약 150여명의 학생들과 1:1 또는 1:2로 만나 학업과 관련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통일시대 주역이 될 수 있는 접경지역 학생들에게 통일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DMZ 글로벌 페어를 통하여 DMZ 접경지역에서 보존과 개발의 공존, 소통의 공간, 마을 주민, 군인, 관광객, 철원 군민의 공동체화를 도모함으로써 철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DMZ를 미래 창조공간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 통일 후 철원의 미래를 구상하는 통일마루 제작
- ∕ 통일미래 구상 워크샵
- ∕ 통일촌 주민들의 삶 사진 전시회
- ∖ 통일촌 유곡리 주민의 삶 조사

##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 개설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였다. 환경대학원 전 학과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되며,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면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승인 필요), 최소 160시간 이상(1일 8시간 × 20일, 약 1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인턴십 과목의 수강신청은 인턴으로 근무한 이후 그 다음 학기에 할 수 있으며, S/U로 성적을 부여한다. 2015년 2학기 중 국내·외 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 사례 중 2016년 1학기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 수강예정인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김지혜 학생의 국제기구 인턴십 사례를 소개한다.

### GEF 및 GCF 인턴십 경험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에서 인턴십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어서 9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입학 전부터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2014년에 입학 후 1년 동안 전공 수업을 들으며 따로 국제기구 인턴십 준비를 진행해 왔다. 국제기구 인턴십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중,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 후 8주간의 교육을 수료하여 최종 인턴십 파견자로 선발되었다. 이후 환경부의 추천과 국비지원의 혜택을 받아 GEF에 지원하게 되었고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을 거쳐 합격되어 그간 관심 있었던 '기후변화 적응 부서'에서 6개월간 근무하게 되었다. GEF에서 맡은 일은 회의록 작성부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관련 사례연구 출판 작업까지 다양했다. 인턴십을 하면서 국제환경기금에 대해 직접 접하게 되면서 기금의 역할과 중요성, 실제적인 업무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GEF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난 직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GCF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얻어 복학을 미루게 되었다. GEF와는 역할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그리고 설립된지 2년도 안된 GCF에서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나의 전공에 맞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부서 "Divis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맡은 일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및 데이터 분석, Funding Proposal 리뷰 및 accredited entity와의 소통, 보드미팅 지원이다. 새로운 국제기구 기관이기에 GEF에서 일할 때 보다 업무량이 많지만 그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있다. 1년 동안 GEF와 GCF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금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나의 커리어 선택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학기에는 복학하여 환경대학원에서 새롭게 개설된 '도시·환경 인턴십' 과목을 수강할 예정이며 인턴십에 대한 학점 인정도 받을 계획이다. 환경대학원 학우들에게도 다양한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가 있다면 강력히 추천하며 많은 관심 갖기를 바란다.

## 도시·환경 국제개발 워크숍(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shop)

환경대학원은 미래를 향한 대학원 발전전략 가운데 하나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의 지난 50여년 간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도시 개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개발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부다, 갠지스를 만나다(Buddha Meets Ganges)'라는 주제로 인도 북중부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가 진행되었다. 대상도시는 불교 순례지인 쿠시나가르(Kushinagar), 라지기르(Rajgir), 날란다(Nalanda), 부다가야(Bodhgaya), 사르나트(Sarnath)와 힌두 순례지인 바라나시(Varanasi), 알라하바드(Allahabad), 치트라컷(Chitracut), 카주라호(Khajurao) 등 9개 도시이다.

11월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현지답사는 최막중 원장과 김태형 교수, 이성재(조교), 10명의 서울대 대학원생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유적지와 지역 주민들의 상생, 유적지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특징 중 하나는 스리랑카, 인도, 터키, 중국, 미국,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국가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지답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 현지를 답사하며 자신들의 연구 주제를 확장시켜 나갔다. 비하르(Bihar) 지역의 유적지와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와 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 본 바라나시(varanasi)와 강가(Ganga)의 도시 정책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현지답사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2015년 상반기에 네팔에 현지답사를 가고자 하였으나, 그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견학이 한 학기 미뤄졌다. 하지만 네팔 지진 이후 곳곳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등 현지 사정이 매우 열악해져 급하게 네팔에서 인도 중북부 지역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계획대상지 현지답사와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질 보고서는 내년 1월에 인쇄될 예정이다.

이번 답사에 있어서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박순만은 네팔 및 인도 출국 준비 부분을 책임졌으며,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이성재는 인도 현지답사에서 학생관리 및 보고서 작업 등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 기반시설계획론

환경계획학과 이영성 교수가 담당하는 기반시설계획론은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수업으로서 근대 도시계획이 형성될 때부터 최근까지 도시계획에서 변화해 온 기반시설계획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의 수요추정,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투자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기반시설 운용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울시 도심 기반시설을 현장답사하였다.

2015년 11월 5일, 이영성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18명(환경계획학과 16명, 건설환경공학부 1명,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1명)이 함께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서울시 도심 주요 기반시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역사와 계획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공간시설인 서울광장과 공공·문화시설인 서울시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을 다녀왔다. 또한 역사자원인 덕수궁과 경희궁을 방문하여 도심 속 역사자원을 활용한 기반시설 계획의 실제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답사는 학생들이 각자 안내자처럼 답사 대상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서로서로 안내자가 되어 설명하니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여러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 측면과 사회적 편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볼 수 있었다. 늦가을 현장답사는 학생들의 감수성을 일깨워 풍요로운 생각과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교통전공 하계 해외답사

교통전공에서는 재학생들 간의 활발한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여름 휴가기간에 일본 답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교통전공 학생 14명은 일본 야마구치 지역을 방문하여, 아카마 신궁, 아키요시동굴, 루리코지 5층탑, 모지항 레트로 지구 및 큐슈철도역사 박물관 등을 답사하였다.



## 토양 환경학 남부학술림 답사

환경계획학과 오능환 교수가 담당하는 토양환경학 수업에서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수강생 7명과 함께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백운산 남부학술림 답사를 진행하였다. 본 답사를 통해 수강생들이 유역 내의 토양과 물을 채취해 하천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실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했다.

답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의 추산시험장은 혼효림과 침엽수림이 식재되어 식생에 따른 토양, 물 순환의 생지화학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용이한 지역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수강생들은 직접 토양과 하천수 및 퇴적물을 채취하고 실험실로 이동하여 풍건 과정을 실시하여 토양 특성이 유역 내 소하천의 물과 퇴적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번 답사에서는 답사 결과물에 대한 실험·분석을 통해 수강생 스스로가 연구 자료를 마련하고, 직접 분석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환경관리전공 내성천 답사

환경관리 전공은 2015년 10월 2~3일, 1박 2일 동안 5개 수업(생지화학,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후변화정책, 환경체계론, 과학기술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로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동수 교수, 이도원 교수, 윤순진 교수, 오능환 교수(이상 환경계획학과)와 환경관리전공 25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답사는 2014학년도 2학기 환경관리전공 수업 통합 답사에 이어 두 번째 수업 간 통합 답사였으며, 4대강 사업의 일부부분인 내성천 상류 영주댐 건설에 따른 환경적 특성변화의 관찰과 더불어 학생들의 환경 의식 및 환경 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였다.

작년에 이어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의 변화를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영주댐 건설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답사였다. 아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내성천 답사에 참여한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노재욱 학생의 내성천 답사기를 소개한다.

### 내성천 답사기

환경관리 전공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10월 3일 토요일, 내성천에 다녀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다. 원래 하루 전인 금요일에 선발대가 미리 출발했지만, 나는 눈술 학원 참석 일 때문에 다음날 후발대로 출발했다. 작년과는 다르게 안동 하회마을도 갔다고 하는데, 별로 부럽지는 않았다. 후발대로 가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환경관리 전공의 전통인 신입생 장기자랑을 놓쳤다는 것이다. 우리 전공 사이에서는 우리 기수(김기욱, 김남영, 김민수, 김사가, 김지현, 김충원, 김혜승, 배상은, 노재욱, 오기)의 장기자랑이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전통이 깨지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

1년 만에 가는 내성천 여행에 마음은 설레었지만 눈꺼풀은 무거웠다. 일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2시간 밖에 못 자고 일어나 내성천까지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김지수 학우와 콜란 학우가 동행해주었다. 사실 원래 잠을 못자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성천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환경관리 전공 답사를 내성천으로 가자고 윤순진 교수님께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도 바로 나였다. 하지만 그런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피곤에 절어있는 몸을 이끌고서라도 내성천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였다. 물길을 다시 걷고 싶었다.

출발하고 약 3시간이 흐르니 영주를 지나 작은 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후발대로 동행한 지수는 내성천은 처음이라서, 나는 운전 중에 내성천이 눈에 보이면 "저기야! 너무 아름답지?"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온 티를 내고 싶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성천이 있어야 할 곳에 내성천이 보이지 않고 이상한 강만 눈에 보여서 섯둑 입을 뿔 수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이상한 강이 내성천이었다. 겨우 1년 만에 모래가 눈에 띄게 쓸려 내려가고, 각종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서 안타까움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물길을 걷는 시간에 맞춰 선발대와 합류했지만, 나는 물길 걷기가 끝나는 구간에 미리 차를 가지고 가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물길을 걷지 못하여 아쉬웠다. 그리고 걷는 구간이 작년보다 훨씬 짧아져서 다른 학우들의 다리가 한 학기 내내 탄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작년과는 너무도 다른 강의 모습이었다. 모래알은 배 이상 굵어진 것 같았고,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끼도 보였다. 무엇보다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에 내 마음도 아려왔다. 내성천은 부드럽고 따뜻한 생명의 강이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중에 아이들과 꼭 함께 걷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강이었는데…….

물길을 걷고, 영주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선발대는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나는 영주에서 1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거의 밤을 새고, 아침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서너 시간 운전해서 서울로 가는 것은 무리였다. 하루 푹 쉬고 다음날 일어나, 무섬마을에 갔다. 그리고 물길을 걸었다. 그 먼 길 힘든 몸을 이끌고 온 단 하나의 이유였다. 분명 작년에 비해 모래는 거칠어졌고, 이끼도 많아졌지만 아직 너무나도 아름다운 강이었다.

물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아직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미 늦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슬픈데, 영주댐으로 인해 고향을 잃는 분들과, 내성천이라는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을 잃어가는 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의 부드러운 물길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 BK21 Plus

##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 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협력의 현황과 전망 워크숍



2015년 10월 23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협력의 현황과 전망'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2011년 5월 정부가 수립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프로그램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 도출과 지속가능발전과 Climate Smart Planning과의 연계성 도출을 통한 Resilient City의 학술적 논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약 3시간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훈 박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1부 사회는 선문대학교 이윤 교수가 2부 사회는 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지속가능발전과 탄력도시, 지속가능발전과 새마을운동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부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훈 박사가 "Resilient C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ase Studies of Korea, Japan and Germany"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의 홍사홍 박사가 "지역경제 회복력: 이론과 측정 발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2부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택구 박사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성대 조성권 교수가 "지속가능발전과 새마을운동의 연계를 위한 일반화 모델 구축"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각 세션 발표 이후에는 5명의 토론자들이 나서서 연구 방법론과 실효성,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및 코멘트를 주고 받으며 토론시간을 가졌다.

## A Post-Modern Climate : From Adaptation To Social Change

2015년 11월 12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John Byrne 교수를 초청하여 제13차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John Byrne 교수는 에너지기후변화정책을 담당하며 에너지환경정책학을 교수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권위자이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4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주저자로 참여하여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발표주제는 'A Post-Modern Climate: From Adaptation To Social Change'로 John Byrne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강연했다. 기후변화 적응이 물리적인 기반시설의 정비나 기술적 처치를 가하는 방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한 생활양식과 사회적 취약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John Byrne 교수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국제에너지자문단 위원으로 11월 11일에 개최된 제3차 서울 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 윤순진 교수와 함께 서울시의 태양광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의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에서 단열 등으로 건물 효율을 20% 높이고, 공공건물과 일반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옥상 면적의 30%만 설치했을 때 최대부하가 나타나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주간 전력 소비 필요량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였다.

## Developing Sustainable Energy Environment in India: Towards Citizens' Movement through Energy Audit Initiative in City of Thane

2015년 11월 13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Veermata Jijabai Technological Institute의 Sanjay Mangala Gopal교수를 초청하여 제14차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Sanjay Mangala Gopal교수는 인도의 타네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왕성한 환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다시 베마타 대학에서 교수를 맡고 있다.



발표주제는 'Developing Sustainable Energy Environment in India: Towards Citizens' Movement through Energy Audit Initiative in City of Thane' 로 Gopal 교수는 인도 수도 근처의 Thane이라는 지역에서 실행했던 에너지전환운동에 대해 강연했다. Thane은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기술이전, 하향식의사전달(Top-down), 민관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고팔 교수는 민관이 아니라 공공파트너십(PUPP)을 강조하였다. 시민 참여를 통해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실천을 더욱 강조한다. Thane의 시민들은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어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것인지 고르고 모여서 서로의 절약 경험을 공유했다. 에너지를 아끼고 전기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에너지사용의 주체가 되는 경험은 기후변화대응문제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Talk Concert

2015년 9월 19일,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 행사의 일환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에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도전의 길 :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동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 여덟 명을 무대로 모셔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졸업한 동문뿐만 아니라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선후배간 만남의 장이 되었다.

변창흠(도시 및 지역계획 동창회 전공대표, SH공사 사장) 동문이 콘서트의 문을 열어 주었고,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 원장)의 축하 인사가 있었다. 무대에서 김대중(동창회 운영이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동문이 사회를 담당했다. 노소영(도시 9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동희(도시 88, SBS 광고부장), 장경석(도시 96, 국회 입법조사관), 한경원(도시 00,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신혜란(도시 96,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송미령(도시 89, 농촌경제연구소 부원장) 동문이 무대로 올라 자신의 도전적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동문들은 당시 대학원 생활과 교수님에 대한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곤 했다. 또한 참석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주제와 활동분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인생선배로서 지혜를 나눠 주었다.



## 로테르담 초청강연회

로테르담 초청강연회는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회는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초청으로 네덜란드에서 현재 활동 중인 강연자를 모시고, 로테르담에서 진행되는 도시설계 및 조경설계의 경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강연에는 환경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시설계협동과정 및 건축학과 학생들도 함께 자리를 하였고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약 50명 정도가 함께 하였다.

첫 번째 강연자인 존 베스트릭(John Westrik)은 도시설계가로 전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시개발청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교 도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발표주제는 도심의 두 번째 재생(City centre of Rotterdam)이었다. 두 번째 강연자인 로드바이크 반 뉴벤하이제(Lodewijk van Nieuwenhuijze)는 조경설계가로 네덜란드의 H+N+S Landshapsarchitecten 소장이다. 이 도시조경설계회사는 오랜 역사와 많은 설계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H+N+S는 설립자들의 첫 성의 알파벳을 딴 이름이다. 이번 발표주제는 네덜란드 물시스템의 통합디자인(Integration of Dutch Water System)이었다.



존 베스트릭과 로드바이크 반 뉴벤하이제는 현재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는데, 도심 내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물 순환시스템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설명해주었다. 그 후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강연자의 응답과 청중들의 토론까지 이어지는 활기 넘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 환경관리 전공 학술활동

## 서울환경포럼 추계 학술세미나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조경두, 환경 86,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년 추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력, 환경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전공 주임교수인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와 서울환경포럼 조경두 회장을 포함한 총 40여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 날 포럼은 제1부 '환경산업의 동향과 전망'과 제 2부 '해외 환경 동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총 4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먼저 1부에서는 송동하 동문(환경 91, 스마클㈜ 대표)과 김윤관 동문(환경 94, 그린에코스㈜ 대표)이 각각 '듀얼 배터리팩 및 부스팅 기술 적용 Unicle 소개'와 '우리나라 환경 시스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지정토론에는 이응경(환경 96, ㈜터알 대표), 이민영(환경 99, 리차드컨설팅(주) 대표) 동문 외 재학생 3인이 참여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주진 동문(환경 0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미국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동향' 발표와 우정현 동문(환경 89, 건국대학교 교수)의 '대기환경조사를 위한 한미 공동 항공 캠페인' 발표가 있었다. 약 3시간에 걸친 포럼을 마친 후 환경관리 동문 및 재학생은 연이어 진행된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 행사에 참여하였다.

## 2015 회복탄력성 세미나

이도원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14일, 제1회 회복탄력성 세미나를 '한국 지역 사회-생태 시스템의 회복탄력성' 이란 주제로 아시아연구소 230호에서 개최했다.

이도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수진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강상준 교수(국립강릉원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자연재해와 회복탄력성', 강신규 교수(강원대 환경과학과)의 '몽골의 자연재해 취약성 기작과 회복탄력성', 김정규 원장(고려대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의 '리질리언스 기반 토양관리' 발제가 진행되었다. 2부는 AIEES 김남수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전대욱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리질리언스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Resilience Imperative', 이도원 교수 연구실 김고은 박사과정생의 '회복탄력성 선행연구의 함의와 한계' 발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5명의 참석자들이 6회까지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에 바라는 점을 공유한 뒤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2회 세미나는 8월 28일 경북 울진 소광리에서 생태전공 연구자들끼리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3회 세미나는 12월 18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국내 연구자 20여명을 초대하여 4명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중국 대련공대 간 공동세미나

2015년 10월 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환경대학원과 중국 대련공대 간의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중국 대련공대 교통물류학과 방원단은 Lui Kai 교수의 인솔 하에 29명의 교수와 학생이 환경대학원을 방문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교통현황을 주제로 약 2시간 간에 걸쳐 공동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양 대학 소개와 2개의 발표 및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부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장동욱이 '스마트 카드 자료를 활용한 수도권 노선버스의 기능별 분류', 석사과정 김영돈이 '스마트 카드 자료와 스트레스 지표를 활용한 버스 노선의 서비스 수준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2부 세션에서는 대련공대 ZHANG Qi 학생이 '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중국 자가용 소유 영향요인 분석', CHEN Meng-lu 학생이 '중국 대련 지하철 역세권의 교통운영환경 분석과 개선', LUO Li-chen 학생이 '이중정지선이 있는 독립 교차로의 운영체계와 적응방법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세션 발표 이후에는 4명의 토론자들이 나서서 연구 방법론과 실효성,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 및 코멘트를 주고 받으며 토론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환경대학원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와 대련공대 Liu Kai 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되었다.



## 제23회 교통연구세미나

2015년 7월 20일에 제23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2004년 시작되어 지난 11년간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219편에 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교통연구세미나의 형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부에서는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연구와 과제에 기반을 둔 총 11편의 논문을 포스터 형태로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박사과정 3명이 각각 연구논문을 구두발표한 후 재학생들이 그에 대해 주제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는 1부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과제논문, 2부에서 발표된 박사과정 논문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각각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논문 각 한 편을 투표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임강원 명예교수님과 김성수 교수(환경계획학과)가 시상을 진행했다. 우수 연구포스터 발표는 석사과정 박정웅의 'AHP를 이용한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계획요소의 중요도 평가', 우수 과제포스터 발표는 박사과정 정동재의 '철도 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운임 효율화 방안', 우수 구두발표는 박사과정 이영락의 '역세권 개발 압축도와 지하철이용 연구'가 선정되었다. 본 세미나는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폐회사로 마무리 되었다.



## 융복합연구 공개집담회

융복합집담회는 2015년도 1학기에 이어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이어졌다. 9~11월 첫째 주 금요일에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저명한 강사들이 초빙되어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강연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 미래의 도시의 모습과 융복합 연구동향

2015년 9월 4일에는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미래의 도시의 모습과 융복합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1학기에 이어 융복합 집담회의 네 번째 문을 열었다. 강연에서는 미국의 도시변화과정을 예로 들어 소외되지 않는 미래도시에 대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작된 '미래 도시'에 대한 연구동향 소개가 이루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기술발생에 의한 대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지훈 교수는 지금 20대의 차량 및 운전면허 소유자는 30대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기술발생에 의한 대체재와 '우버' 등의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현대도시에서는 기술발전 및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에서 시작된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출발이었다. 또한 정 교수는 도시가 점차 'Walking City'로 변화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인구의 변화, 시민들의 건강 향상 등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한 예로 벨기에 Leuven을 모델로 소개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대규모 주차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도시 위는 그린벨트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걸어다님으로써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평균 정신건강 향상, 스트레스지수 하락, 자동차 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 도시의 숨은 장소 발견을 통한 골목의 성장 등 도시 인프라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지훈 교수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소비전력이 감소하여, 미래 주거환경에서는 각 집마다 에너지를 담당할 수 있는 배터리가 상용화되어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결론을 맺었다.

## 인공지능 시대의 서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2015년 10월 2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서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이라는 주제로 집담회에서 발표하였다. 김대식 교수는 미래도시에서 활용될 실질적인 인공지능의 기초데이터인 Structured Data와 Unstructured Data에 대한 개념 및 한계점 분석,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미래도시에서 기술과 사람, 인공지능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김대식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Structured data와 Unstructured data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Structured data는 일반적인 데이터로, 기계가 분석할 수 있는 수직데이터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data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Unstructured data라고 설명한다. 이는 강아지를 기르는 법 등 경험으로 터득되는 수직으로 설명할 수 없는 data를 의미한다. Unstructured data를 분석하지 못하면, 사실상 데이터분석은 불가능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과거에 우리는 Unstructured data를 분석해내지 못했지만, 2010년 이후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학습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Unstructured data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통계학적으로 학습하게끔 유도한 '기계학습 방법'이 개발되어, 기계가 어느 정도 우리의 현실을 맵핑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스북 얼굴인식, 마이크로소프트 음성인식, 구매패턴에 따른 상품 추천 등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예이다. 김대식 교수는 Unstructured data의 오랜 축적은 기계가 사실상 재현할 수 없었던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직업군, 인프라, 사회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 로마의 사례를 들며 인공지능이 사회에 도래했을 때 예상되는 기계의 인력대체,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중산층 하락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디스토피아로 작용할지도 모르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로공간 활용방안

2015년 11월 6일에는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실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로공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신해 실장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교통연구 흐름, 도시의 변화에 따른 공공 공간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재 교통 분야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도로 다이어트'의 해외 사례를 설명하였다.

과거에는 교통 연구 분야에서 차량 등 교통 그 자체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현재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 공간, 즉 '도로 다이어트'가 교통 연구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신해 실장은 도로 공간에 인접한 공공 공간의 확보, 대중교통,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한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로 설명한 방식은 유럽에서 시도된 '용이 도로(complete street)'이다. 이는 보행로와 도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발표한 과제는 교통 시스템과 보행공간의 연결성 문제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환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선에 여러 노선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환승을 불가피하게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교통체계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도로 공간에서의 공공 공간 확보를 통한 보행의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이 서울시의 과제라고 소개하였다. 서울의 명동과 종로, 청계천이 연결되어 보행이 용이하게 된다면 도시의 매력도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신해 실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대중교통의 정책적 융합이 중요하며, 광역 버스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에 따른 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고려해야 할 '효과적인 교통량 분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행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줄이게 되면 교통량의 분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잠재 교통량에 대한 데이터 연구와 효과적인 교통량 분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시사하였다.

## 환경조경학과의 학술활동

### 조경·도시설계전공 융복합세미나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305호에서는 조경·도시설계전공 동창회(전공대표 안계동, 조경 79, 동심원 조경설계연구소 소장)의 융복합세미나가 열렸다. 조경·도시설계전공 융복합세미나는 조경·도시설계전공 동창회가 홈커밍 행사를 주관했던 2014년에 시작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로, 올해 5월 5일에 있었던 조경·도시설계전공 홈커밍데이 행사를 전후로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며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번 융복합세미나는 "조경과 도시설계의 융합적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장), 안계동 회장을 포함한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윤상준 동문(조경 97, 이화원 정원문화연구소)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안계동 회장의 환영사와 손용훈 환경조경학과장의 축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세 가지 주제의 발표로 이어졌다. 첫 번째는 이동훈 동문(조경 90, 부산광역시)의 "부산시민공원 조성 및 시민참여", 두 번째는 이남진 동문(조경 07, 동심원 조경설계연구소), 진린 동문(조경 95, 아키텍처 도시연구소)의 "경의선 푸른길과 주변 도시의 변화", 세 번째는 유형식 동문(조경 94, PMA엔지니어링)의 "G밸리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구상" 순으로 발표되었다.

잠시 휴식을 거친 후, 진행된 지정 및 방청객 토론은 김기호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자는 홍윤순 동문(조경 85, 한경대 조경학과), 박상섭 동문(조경 90, da GROUP), 박유정 동문(조경 90, 삼성물산), 박태원 동문(조경 96, 광운대 부동산대학원), 정수진 동문(조경 95, 수원시정연구원), 김용국 동문(조경 0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 서예례 교수(환경조경학과)로 구성되었으며 동문, 교수님, 재학생들 사이에 열린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조경·도시설계전공 동창회의 총회와 함께 진행되어 조경·도시설계전공 동창회의 운영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해보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 국제학술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황세원**(박사수료)은 도시하천복원으로 인한 주변도시공간과 도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를 SCI급 논문으로 출판하였다.  
Hwang, Soe Won. "Restoration of Urban Streams and Transforming Lifestyle Patterns: Two Cases in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32.2 (2015): 131-144.  
10월에는 스위스 로잔공대(EPFL)에서 개최된 국제박사논문학술세미나인 The 8th International PhD Seminar 'Urbanism & Urbanization'에서 "Is Vertical Agglomeration the New Horizontal Urbanity of Asian Megacities?"라는 박사논문과정의 일부분을 논문화하여 발표하였다.  
11월에는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 7회 국제학술대회인 EAA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n Architectural Culture)에서 "Fragmented Urbanicity: Agglomeration and Proliferation of Apartment Complexes as Private Enclaves Shaping the Urban Landscape of Seoul" 논문을 발표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김민재**(박사과정), **시왕**(석사과정), **문주열**(석사과정)은 2015년 7월 17~20일까지 중국 하얼빈공과 대학교에서 열린 "The fifth Asian Seminar in Regional Science"에서 "Economic value estimation of North Korea's original cadastral map digitization from Chinese perspective"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북한지역 지적원도 299,688매의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CVM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설문을 통해 WTP를 분석하였다.
- 2015년 8월 12~14일에 개최된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 (APSA), Malaysia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임혜연**(박사과정)학생과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The Effect of High-density Housing (Apartment) on Water Infrastructure: Empirical Evidence in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 (APSA), Malaysia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허지정**(박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e Leisure Consumption by Young Seniors in Korea: Effects of Time and Income Constraint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김고은**(박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2015년 8월 20~22일에 세종시에서 열린 International Symposium on Urban Planning 2015에서 "Segregation of Urban Leisure and Shopping Centers - focusing on Income and Age Groups in Seoul Metropolitan A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기은**(박사과정), **정자은**(박사과정) 학생과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10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EEC 2015에서 "A Dynamic Multimedia Model to Prioritize Surface Soil Pollution Potential of Chemicals from Accidental Release"란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누출된 화학물질 중 어떤 화학물질이 토양오염을 더 잘 유발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다매체 모형을 개발하였고 모형을 통해 물질별 누출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민수**(석사과정)는 2015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인 UNFCCC 제 21차 파리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여 한국 파빌리온에서 한국대표로 "Korea-China-Japan Youth Dialogue for INDCs of Each Country"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UNFCCC의 INDC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INDC 제출과정과 내용을 아시아 국가들의 INDC와 비교하였다. 김민수는 UNFCCC COP21 기간에 앞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전 세계 기후변화 청년단체의 회의인 Conference of Youth에도 참가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조유리**(박사과정), **이민주**(석사과정), **김종호**(석사과정), **윤성수**(석사과정)는 환경대학원 옥상 양봉장의 꿀벌들의 채이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지난 9월 15~20일에 개최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양봉대회 (Apimondia 2015)에서 "Ecological Alternative: Effects of Rooftop Garden on Foraging of Apis mellifera in Urban Landscape"라는 제목의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도시와 야생의 경계에 위치한 특이한 경관 맥락을 갖고 있는 환경대학원 옥상을 서식지로 하는 꿀벌들의 채이활동을 분석하였다.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자연 서식지가 많이 감소하는 현재 꿀벌이 도시 경관 안에서도 수분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서의 도시양봉과 그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고운(박사수료), 강완모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서범석 박사(강원대학교),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문화경관과 리질리언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가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의 사례연구를 제주도에서 열린 ICOMOS-IFLA ISCL 2015 국제 심포지움에서 "Linking Cultural Landscape and Resilience Research: Implications and Empirical Evidence"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마을규모 사회-생태 시스템의 생태계 서비스와 지역 지식: 회복탄력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리질리언스 연구 이론 중 specified resilience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문화경관의 리질리언스를 연구하는 가능성에 대해 리뷰내용과 이와 관련한 국내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 **환경관리전공 윤성수(석사과정), 김고운(박사수료), 서범석 박사(강원대학교), 최호(서울대 과학교육과 박사과정), 강완모 박사(국립산림과학원)**는 서천에 있는 농지연못습지인 동병의 식물종풍부도 연구를 진행, 이에 대한 결과를 지난 11월 제주도 돌문회박물관에서 열린 ICOMOS-IFLA ISCL 국제심포지움에서 "Biodiversity of Korea's Unique Cultural Landscape Element: Plant Species Richness of Dumbeong in Seocheon"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마을규모 사회-생태 시스템의 생태계 서비스와 지역지식: 회복탄력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의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동병의 관리 여부에 따라 식물종풍부도와 수환경요소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전공 김종호(석사과정), 김고운(박사수료), 서범석 박사(강원대학교)**는 서천군에서 경관의 변화와 지하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11월 5일에 제주에서 열린 ICOMOS 학회에서 "Changes in the Climate, Land Use, and Groundwater Level of a Korean Rural Landscape: Implications for Regional Resili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 지역 사회-생태 시스템 회복탄력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기초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0년간 지하수위, 토지이용변화, 강수량의 변화를 통하여 가뭄에 대한 지역의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연구하여 발표했다.
- **환경관리전공 김남영(석사과정)**은 2015년 7월 22일 Society for Risk Analysis 학회가 주최하는 World Congress on Risk 2015 학술대회에서 "Chinese Public Perception of Nuclear Power: A Case of Guangdong Jiangmen Anti-Nuclear Activism"라는 제목으로 논문 구두 발표를 하였다. 또한 동 대회에서 **환경관리전공 이종찬(석사과정), 수미야(석사 졸업)**는 2015년 7월 20일에 각각 "A Study on Risk Communication: Case of Avian Influenza in Korea" 와 "Pursuit of Food Security through Mobility in Context of Environmental Changes: A Case of Mongolia"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협동과정조경학 원세형(박사수료), 조시은(박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5년 9월 원세형을 제1저자로 하여 SCI급 논문 Habitat International에 "The Neighborhood Effects of New Road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 of Urban Settlements and Reside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Danang, Vietnam"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 베트남 다낭 해안을 따라 건설된 도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개발대상국에서 인프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시변화(사회 경제적 측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김무한(박사졸업), 김명천(석사과정), 조성아(석사과정)**는 2015년 ICOMOS-IFLA ISCL 국제심포지움에서 "Selection and Verification of Representative Place Images"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청계천을 대상으로 대표 경관이미지와 주요 구성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디오�촬영을 통한 핫스팟 분석으로 6가지 유형의 대표경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 20명의 Eye tracker(시선추적장치)를 통해 대표경관의 시각적인 우세 요소인 인공 구조물과 대비되는 녹지와, 물의 흐름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문화경관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환경조경학과 김무한(박사졸업), 김진(석사과정), 윤다운(석사과정), 조성아(석사과정)**는 2015년 ICOMOS-IFLA ISCL 국제심포지움에서 "Yugok-Ri Tongilchon Case Study"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유곡리 마을주민 60세대 중 10세대를 상대로 Photo Elicitation Interview를 실시하여 문화, 생태, 일상적 가치를 발굴하였다. 또한 마을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치들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김준현(박사수료)**는 2015년 ICOMOS-IFLA ISCL 국제심포지움에서 "Nationalist Narratives Expressed in Modern Park Design: The Study on Seoul Olympic Sculpture Park"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은 그동안 크게 변화한 주변 도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기념공원으로만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수행한 연구과제인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 활성화 방안의 결과를 토대로, 올림픽 공원의 의미를 역사적, 사회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공원의 현재적 맥락을 제시하였다.

· **협동과정조경학 윤예화**(박사과정), **환경조경학과 김진**(석사과정), **이제이**(박사과정), **손용훈 교수**, **성종상 교수**는 2015년 ICOMOS-IFLA ISCLL 국제심포지움에서 "Historic Urban Landscap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Based Tourism"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부암동 지역을 대상으로 문헌고찰, 주민해설사를 동반한 워킹투어, 심층면접을 통해 역사경관 투어리즘이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쟁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고희한 일상생활에 대한 요구 vs 관광객의 체험 수요 간 마찰 뿐 아니라 문화재 소유주의 재산권 vs 이에 대한 공공적 가치 간 논란 등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6가지 부문의 이슈가 도출되었다.

· **협동과정조경학 허종화**(박사과정)는 2015년 ICOMOS-IFLA ISCLL 국제심포지움에서 "Changbai Mountain Sacred Space as Historic Cultural Landscape"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장백산과 그 주변 지역에 장백산을 중심으로 파생한 제사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장백산이 가지는 신성성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장백산의 신성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정권의 교체에 의한 타 민족의 이주와 문화의 수용으로 제사성격과 신적대상인 변화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국내학술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다예**(박사과정), **양원탁**(박사과정), **유재성**(박사과정) 학생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도권 근교농촌의 변화 동인과 근교농촌의 유형화"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변화하고 있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변화동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 및 사례지역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근교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정훈**(석사과정) 학생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관계망, 근린환경 내에서의 일상활동 간의 인과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장리아**(박사과정), **이윤아 연구원**(환경계획연구소),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10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환경공학회 국내학술대회에서 "RCP4.5/8.5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benzene, o-xylene, 2,3,7,8-TCDD, OCDD의 환경 중 동태변화 비교분석"이란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은 다매체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상인자의 변화가 다이옥신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환경 중 동태에 끼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임미정**(박사과정)은 **아시아연구소 엄은희 박사**와 함께 2015년 10월 16일 개최된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가을 학술대회에서 "이라와디 들고래와 메콩지역의 지역사회기반 생태관광: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한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동 대회에서 **환경관리전공 이종찬**(석사과정)은 "TNR과 동물 정치: 길고양이는 어떻게 공존의 대상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임미정**(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11월 06일, 2015 지리학 대회의 '한국공간환경학회 주관 세션'에서 "캄보디아 캄퐁플릭의 주민참여적 기후변화 적응: 수동적 참여로부터 능동적 참여로"이란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넓게는 캄보디아의, 좀 더 자세히는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범람원에 자리 잡고 있는 캄퐁플릭 코뮌(Commune)의 기후변화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환경관리전공 정현영**(석사과정), **이동길**(석사과정), **이하동**(석사과정)은 2015년 10월 30일 개최된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에서 "산-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국내 RPS 도입 당시의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를 기준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동 대회에서 **환경관리전공 노재욱**(석사과정)은 "새누리당 지지자의 핵발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제 투표에 미치는 영향: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김지수**(석사과정)는 "이명박 정권 시기 일반인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태도와 정부지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김민수**(석사과정)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국내 확산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환경관리전공 홍은정**(박사과정), **윤수진**(박사과정)은 동 대회에서 "한국 그린캠퍼스의 현황과 과제: 환경부 그린캠퍼스 사업 참여 대학 관계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안승혁**(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도시 지속가능성 지표 체계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안승혁**(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8월,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윤수진**(박사수료), **엄지연**(박사과정)은 2015년 8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공간학회의 '공간과 사회' Writing Workshop에서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폭염대응대책 연구"이란 제목으로 구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폭염 정책의 실무자와 주요 정책대상자인 노인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폭염정책의 체계를 살펴보고 폭염대응 정책의 한계와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공간환경학회지 '공간과환경'에 2015년 12월 동 제목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 **환경관리전공 마사(박사과정)**는 "Public Housing and Residential Differentiations: Case Study of Wuhan City"라는 제목의 논문을 Journal of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28 no.3에 게재했다. 또한 그는 2015년 12월,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에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Ecological Immigration: A Case Study of Sanjiangyuan Area"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 **환경과정조경학 유영수(박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2015년 10월 도시설계학회지에 "저층 주거지 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발 특성과 도시설계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층 주거지의 필지 단위 재개발의 경향을 파악하여 저층 주거지에 대한 도시설계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함에서 출발하여 이를 위해 새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발한 공급이 이루어진 화곡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발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저층 주거지에서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이주영(석사과정)**은 2015 한국생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도림천생태현상에 기반한 시설물 제안"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 **환경조경학과 강보금(석사과정), 김진영(석사과정), 성종상 교수**는 2015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환기구 디자인에 따른 보행자 행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창의적인 환기구를 설치, 지나가는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도시의 미관과 안정을 고려한 환기구 디자인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임우성(석사과정),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11월 27일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5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2015 Symposium on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에서 "Water Feature의 물 발자국 산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건축 3대 기본 자재 생산 시 발생하는 물발자국 수치) 실제 준공된 water feature에 대입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물발자국 값을 pilot project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임우성(석사과정), 조소현(석사과정), 안도영(석사과정), 송소향(석사과정),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바람 따라 소리따라"라는 제목으로 영구 존치되는 실험정원을 조성하였다. 본 정원은 안성 남사당패의 역동적인 상모들리기와 신명나는 악기소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상모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역세류와 함께 바람이나 관람객에 의해 흔들리면서 풍물악기의 소리를 재현한다.



#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 2015년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정훈(석사과정),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10월 31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15년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근린환경에서의 노인활동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집단을 구분하여 건강상태별 근린환경 내에서의 일상활동과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근린환경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 한국환경실내학회 연차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전공 장리아(박사과정) 학생과 이윤아 연구원(환경계획연구소),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10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실내환경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변화예측 모형(IIAQ-CC)의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실내 환경 예측 모형 IIAQ(Integrated Indoor Air Quality Model)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 대기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실내모형 개발하였다.

## The IRES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우수논문상 수상

환경관리전공 스푸펠레나(석사과정), 정현영(석사과정)은 2015년 9월 13일 홍콩에서 열린 The IRES 9th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Private, Government and Social Cost of Small-Scale Solar Feed-in-Tariff as an alternative to Stand-Alon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Using Linear Programm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논문상(IRES Excellent paper award)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2016년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제도 도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 글로벌 녹색-기후변화 Best Practices 공모전 장려상 수상

환경관리전공 강소연(석사과정) 외 1명은 녹색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녹색-기후변화 Best Practices 공모전에서 "인도네시아 산림거버넌스와 한국형 REDD+ 모델: 산림파트너십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사례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ODA 사례의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1th China Urban Housing Conference Best Paper Award

협동과정조경학 조시은(박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5년 7월 24~25일 Qingdao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for Academic Exchange에서 "Housing Diversity in Transitional Suburban China: A Study of Songjiang, Shanghai"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발표하여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Songjiang지역의 두 주거지역의 다양성을 entropy index로 살펴봄으로써 서구의 다양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 제20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황세영(석사과정)은 2015 경기도건축문화제에서 주최한 제20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작품 전국 공모 계획작품 부문(미발표 창작 작품) 작품주제 LINK - 경계의 포용성에서 "Equal"라는 제목으로 동상을 수상하였다. 본 작품은 오피스 건물로 강남의 다양한 문화의 공간포용성을 주제로 디자인 하였다.

## 제4회 생활정원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및 시공 입선

환경조경학과 장혁권(석사과정)은 2015 국립수목원에서 주최한 제4회 생활정원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및 시공에서 "Cell Ceiling Garden"이라는 제목으로 입선했다. 현대 실내주거에 적합한 정원을 테마로 베란다의 천장에 설치 가능한 현대인을 위한 정원을 디자인 및 시공했다.

## 2015 한국생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장혁권(석사과정)은 2015 한국생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현대주거양식에 적합한 실내정원 제안"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논문에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현재 국내의 정원문화를 파악하여 국내주거의 물리적 형태와 정원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원문화 장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최우수상

환경조경학과 윤다운(석사과정), 김수정(서울여대 학부과정), 신혜인(서울여대 학부과정)은 산림청 주최의 2015년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꽃자왈을 잃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2015년 11월 06일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도시숲과 건강으로, 본 작품에서는 천이를 활용하여, 사라지고 있는 꽃자왈의 시범림을 조성함으로써, 인근공원과 연계한 제주도민을 위한 공원조성을 도모하였다.

## 석·박사과정 학생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활동

서울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http://oia.snu.ac.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교류 프로그램에는 교환학생, 해외연수지원, 방문학생, SNU in World, 해외유학지원 제도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교환학생과 해외연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교환학생 제도는 현재 지역별(아시아, 미주 및 오세아니아, 유럽)로 매 학기마다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환경대학원에서는 2015년 2학기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김남영(스웨덴)이 Stockholm University에 다녀왔으며, 2016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의 석사과정 김주영(이탈리아), 김민수(체코)가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단기해외연수와 장기해외연수로 나뉜다. 단기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은 방학 중 1~2개월 이내(최소 4주 이상)의 기간을 지원하며 연수지역은 본인 희망에 따른다. 하계 단기연수는 5월 중, 동계 단기연수는 11월 중에 모집한다. 장기해외연수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연수에 대해 지원한다. 모집은 1학기에는 1월 중, 2학기에는 7월 중에 진행된다. 환경대학원에서는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소윤미가 독일 칼스루에 공과대학교에 6주간 방문하였다. 2015년도 동계 단기해외연수에는 총 34명이 합격하였으며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 석사과정 최희진(영국), 환경관리전공석사과정 강소연(인도네시아), 도시및지역계획 박사과정 박사유(독일)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수대학에서 다양한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2015년 2학기에 스웨덴 Stockholm University에서 파견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김남영의 교환학생 경험담을 소개한다.

## 북유럽의 베네치아, 스톡홀름에서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된 건 순전히 충동적인 이유에서였다. 사실 대학원에 들어올 때부터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유럽 파견 교환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공고를 보고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사실 파견 확정이 나고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국제협력본부에 반복 메일을 보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주위에서 석사과정이 무슨 교환학생이냐며, 가서 뭐 할 거냐,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냐는 등 많은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생활비가 꽤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 했다. 매학기 등록금을 낼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해지는데 거기에 북유럽 생활비라니..... 나는 귀가 매우 얇은 사람이기에 그 의견에 휩쓸려 교환학생을 가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역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스웨덴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의 학기도 벌써 끝을 향해가고 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에 고민했던 것들은 다행히도 잘 해결된 것 같다. 석사과정이 교환학생을 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유럽은 Erasmus 프로그램이라고 학위 연계과정이나 교환학생 제도가 매우 잘 되어있어서 석사과정 중에 교환학생을 오는 건 꽤 자연스러운 일인 듯했다. 3학기에 프로포절을 해야 해서 교환학생을 한 학기 다녀오면 졸업이 늦어질까 걱정했지만, 지도교수님과 여러 분들의 배려로 사상 초유의 스카이프 프로포절 발표를 하게 되어 논문 일정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비 문제도 국제협력본부에서 장학금을 받아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 물론 교환학생을 하는 와중에 프로포절을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누군가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 북유럽이 필드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내가 중국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스웨덴에 가는 걸 망설였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스웨덴에 있으면서 중국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자유롭고 매우 진보적이어서, 진보적인 컨퍼런스가 자주 열리기도 한다. 그 예로, 얼마전 스톡홀름 대학에서 'Political Participation in Asia'라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참석한 학자들이 "언젠가 같은 이름의 컨퍼런스를 호치민 시에서 무장경찰 없이 열 수 있는 날을 꿈꾼다."며 폐막하기도 했다. 나는 그 컨퍼런스에서 진보적인 중국 연구자들을 만나 현지조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기에 3~4과목씩 듣는 우리와는 달리, 여기는 한 학기를 2~4팀으로 나누어 한 팀에 한 과목씩 수강을 하게 된다. 나는 총 두 과목의 수업을 들었는데, 9월1일~10월30일까지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Land use and Natural Resources in a Local to Global Perspective) 수업을 듣고, 11월2일~1월15일까지는 지구 기후 및 환경 변화(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 수업을 듣는다. 이런 수강 시스템이 우리보다 효과적인 것 같다. 기말에 받는 스트레스는 여전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나라인지라 학술적으로도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정치생태학 세미나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자유로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스톡홀름 대학은 스톡홀름 리질리언스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er)와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와도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리질리언스 센터에서 여는 강의들도 유익한 게 많아 다양한 이론들과 연구들을 접해볼 기회가 많았다.

한 팀에 한 과목에 집중하여 수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만큼 과제와 평가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공부의 양은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치생태학은 거의 매일 강의를 있고, 매주 금요일 세미나가 열려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기초로 토론이 진행된다. 기후변화 수업에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초를 배우는 과정을 시험으로 평가하고, 에세이를 제출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를 세 번의 세미나에 걸쳐 토론하게 된다. 스웨덴 친구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과 내가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걸 느끼게 된다.

스톡홀름의 녹지 비율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여름에는 강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은 국민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법으로 The right of public access(Allemansrätten)를 제정하여 사유지라도 주인의 허락이 있으면 과일, 버섯 등의 채집이나 캠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 사람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6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스웨덴의 생태적 감수성을 느끼고 다양한 경험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려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스톡홀름에서의 생활이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2015년 하반기 심포지엄 :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2015년 11월 14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DMZ 접경지역인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해보고 향후 통일 시대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DMZ 철원의 이미지를 벗어나 철원 본래의 장소성을 회복하는 한편 젊은 세대에게 DMZ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래자원으로서 DMZ를 재인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환경대학원 학생과 교수 65명이 8월 10~14일 동안 철원에서 5일을 지내면서 체험한 다양한 동영상과 관련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희연 교수(환경계획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 심포지엄의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장)의 사회로 '철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찾자', 'DMZ 접경지역의 토지 문제와 지적 정보화',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철원의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의 3가지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후 동영상 다류의 상영에 이어진 제2부에서는 'DMZ 지역 국가전략 캠페인 연구-철원군 유곡리 사례를 중심으로', '유곡리 일상화 장소성 발굴과 유곡리 브랜딩'이 발표되었으며, 제3부 종합토론은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도희운 행복한 통일로 대표, 박성태 정립건축문화재단 사무국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 연구센터장, 정인철 생태지평연구소 팀장,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영규 소장(철원역사문화연구소)은 '철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찾자'는 주제로 최근 100년 동안의 철원군 상황, 철원군 향토사의 특수성, 철원군의 평화정착 노력, 통일시대 철원군 미래상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영규 소장은 100년간의 역사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철원군의 모습을 설명하며 철원군이 보유한 환경자원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통해 유추한 철원군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철원군은 1924년 전곡각지에서 소작농의 집단이주를 통해 번성했던 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주민의 80%가 북으로 피난하고 중심시가지가 사라져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휴전 이후 1968년 남북관계가 완화되면서 민북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전쟁이 일어날 시 언제 및 방어가 용이한 동송읍-갈말읍-철원읍에 정착촌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철원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는데, 김영규 소장은 철원을 대표하는 상징적 유적들과 향토사를 설명하며 철원군이 지닌 특수성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철원은 선사시대 유적부터 시작하여 노동당사, 송일교 등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의 문화유적이 풍부하고 지정학적 요충지이지만 분단 이후 휴전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받아 왔다. 현재 철원은 평화정착을 위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조성, 경원선 및 금강선 전철 복원 운행, 태봉국 도성 남북한 공동 발굴조사, 국경선 평화학교, UN 평화대학 유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시대에 풍요로운 자연, 유구한 역사,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소유한 철원군이 단절된 역사를 연결하는 중심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래상을 제시하며, 철원군이 통일을 앞장서서 이끌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인수 책임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DMZ 접경지역의 토지 문제와 지적 정보화'라는 주제로 DMZ 접경지역 지적정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DMZ 관련 지적정보 구축 사례와 관련 소송을 분석하여 DMZ 접경지역 지적정보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방선 근처 및 비무장지대에는 토지소유권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불법적인 토지소유 및 부동산 사기사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해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2013년에 특별조치법이 구축되었지만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복구 조사 및 등록(2010), 군용지 자산가치 현실화 추진(2010),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사업(2010), 군방-군사시설 부지의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계획(2012), 국유재산(유휴지) 실태조사 최정화방안 연구(201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사 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멸실-훼손된 지적공부 및 부동산등기부 등의 기초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 및 시설물들의 관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토지관련 소송판례를 검토하자면, 과거 법제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민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손실 보상이 미약했지만, 점차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재산권의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지적조사와 지적정보 구축, 군과 민간 사이의 토지 관련 분쟁 조정 및 해소, 행정규제 사항 등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DMZ 접경지역에 대한 지적조사 및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여야 될 것이다. 이인수 책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DMZ 접경지역 토지 취득 및 거래 문제 시 발생하는 민원이 해소되고,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세입증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통일대비 토지의 평화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 교수동정

### 신임교수 부임



송영근 교수가 환경조경학과 조경전공 (협동과정 조경학 겸임) 신임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2015년 2학기 현재 '환경생태계획', '환경정보수집기법연구'를 강의하고 있으며, 2016년 1학기에는 '환경생태학 특강', '서식지 관리계획'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원격탐사(RS)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환경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계획에 중점을 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송영근 교수는 1979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지구환경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부전공은 경관생태계획(Landscape Ecology and Planning)이다. 학위과정 중에는 일본 유수의 공간 정보 컨설팅 회사들(Asia Air Survey Co., Ltd, Tokyo; Nakanihon Air Service Co., Ltd, Nagoya) 및 태국 UNEP 아태지역 본부 등지에서 장기 파견연구를 수행하였고, 오사카상업대학에서 2년간 강사로 재직하였다. 학위취득 이후에는 교토대학 지구환경대학원의 통합생태계관리 분야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년 서울대학교로 돌아와 농업생명과학 연구원을 거쳐 2014년부터는 협동과정조경학 BK21+사업팀의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국제 경관생태공학(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컨소시엄, 일본 녹화공학회, 한국 환경복원기술학회, 조경학회, 생태환경건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로는 수목의 활력도 평가, 조성녹지의 건전성 평가, 기후변화 및 이상강우에 따른 식생변화 평가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신 인공위성·항공기 원격탐사자료의 융합기법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도시 생물다양성 평가지수 개발, 생물다양성 이행계획 수립, 산사태복구지 생태변화 모니터링, 최신 항공측량기법을 활용한 도시림 모니터링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송영근 교수의 교육 연구의 목표는 '생물 친화적인 도시와 국토 만들기'이며, 이를 위해 경관생태보전연구실(<http://landscape.snu.ac.kr/>)을 오픈하였다. 다양한 공간분석기법을 경관생태학, 보전생태학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환경생태계획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과 학제적 접근을 근간으로 한 교육 연구의 실현을 포부로 삼고 있다.

### 교수동정

-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5년 하반기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과 국제협력센터 연구교류지원사업 및 BK21plus 사업의 지원 하에 국내 도시의 쇠퇴와 재생, 그리고 베트남의 도로개발 효과에 대한 두 편의 SCI급 논문과 1편의 KCI급 논문을 박사생과 함께 출판했다.

· Lee, Jae Seung, Won, Sehyung, and Kim, Saehoon. 2015. "Describing changes in the built environment of shrinking cities: Case study of Incheon, South Korea."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DOI: 10.1061/(ASCE)UP.1943-5444.0000305, 05015010.

· Won, Sehyung, Cho, Sea Eun, and Kim, Saehoon. 2015. "The neighborhood effects of new road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 of urban settlements and reside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Danang, Vietnam." *Habitat International*, 50: 169-179.

· 유영수, 김세훈. 2015. "저층 주거지 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발 특성과 도시설계적 시사점." *도시설계학회지*, 16, 5: 59-76.

김세훈 교수는 베트남 후에시 항강 연안 상세계획 수립 사업에 농생대 정옥주 교수 및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와 참여하게 되었다. 후에시는 다낭시와 함께 최근 6번째 중앙도시로 승격한 베트남 중부의 주요 거점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다. KOICA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600만 달러(시범사업 약 300만 달러 포함)를 투자해 항강 연안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가로 조성 시범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며, 한아도시연구소와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이를 진행 중이다.

-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SCI급 저널 두 곳에 논문을 실었는데, 하나는 토지이용이 통행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단독 연구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설문데이터 분석 시 최우도법이 갖는 편의(소표본 편의 및 분리 문제)를 극복하는 통계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의 방법론적 우수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공저자 서울연구원 고준호 박사).

- Gim, Tae-Hyoung Tommy.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automobile travel utility: a 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D* 41: 188-204.
- Gim, Tae-Hyoung Tommy and Joonho Ko. Maximum likelihood and Firth logistic regression of the pedestrian route choice: a case of Seoul, South Korea.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Online First 예정)

그밖에 국문 논문 세 편을 교통연구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GRI연구논총에 게재한 바(교신저자), 앞선 두 편은 자가용 교통량 및 대중교통 수요량을 추정한 연구들이며 세 번째 논문은 대형쇼핑시설 입지요인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전문저널에 기고한 두 편 중 세계와 도시에 실린 글에서는 사우디 대중교통 현황을 개괄하고 국제개발 차원에서 한국의 진출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철도저널에 실린 글(주저자 박사과정 장재민)을 통해서 서울택시요금 징수체계 정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및 노토지역에서 열린 한일 농촌계획학회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함께 참석한 한국측 참석자는 손재권(현 한국 농촌계획학회 회장), 이성우(전 농촌계획학회 회장), 장태일(현 농촌계획학회 총무이사), 정남수(공주대학교 교수), 서교(서울대학교 교수) 등이다. 본 세미나는 과소 고령화에 대한 한일 농촌계획 분야의 과제와 연구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기획되었다. 한국연구재단 및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행사 지원금을 받아서 실시한 본 행사는 과소와 고령화의 대표적인 사례지인 노토지역에서 3일간 세부 주제를 가지고 특별 세션으로 기획되었다. 손용훈 교수는 27일 Kanazawa Student Community Civic Center에서 개최된 Research session "Directions of rural areas revitalization in the era of depopulation"에서 우리나라 유희농지 관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이재혁(박사과정)과 함께 2015년 10월 SCI급 저널인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에 "Stakeholder Subjectives Toward Ecotourism Development using Q methodology: The Case of Maha Ecotourism Site in Pyeongchang,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평창 마하생태관광지내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성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merican Geophysical Union 학회에 참석하여 환경대학원 생지화학(Biogeochemistry) 연구실에서 수행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제목은 "Ages and Loads of Riverine Carbon of the Five Largest Rivers in South Korea"와 "Impacts of Forest and Agricultural Land Use on Stream Dissolved Organic Carbon during Storms"이며, 환경대학원 이은주(박사과정), 신예라(석사졸업), 전영준(석사졸업)과 함께 우리나라 하천을 대상으로는 최초로, 방사성 동위원소(14C)를 이용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소개하였다.
- **윤순진 교수**(환경대학원 부원장)는 2015년 12월 한준 박사(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졸업)과 함께 "An Analysis of the Electricity Consumption Reduction Potential of Electric Motors in the South Korean Manufacturing Sector"라는 논문을 SSCI 학술지인 *Energy Efficiency*에 게재하는 등 총 7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7월 교신저자로, 유정민 전 BK 연구교수와 함께 "원전과 뉴욕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를 사회과학연구에 게재
- 2015년 8월 교신저자로, 안승혁(박사과정)과 함께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
- 2015년 9월 교신저자로, 백중학(석사졸업)과 함께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미니태양광사업과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서울시 노원구 주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서울도시연구에 게재
- 2015년 12월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와 특성: 롱먼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환경사회학연구 ECO에 게재
- 2015년 12월 교신저자로 "한국 환경사회학의 지적 구조: ECO 논문 제목의 동시출현단어분석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에 게재
- 2015년 12월 교신저자로, 이주형(석사졸업)과 함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한국정책학회에 게재

윤순진 교수는 국내외 다양한 학술행사에 참가하여 14차례 발표 및 강연을 하였다. 2015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orld Congress on Risk 2015에서 "Beyond Catastrophic Energy System: Metamorphosis from Passive Energy Consumers to Active Energy Producers"와 "Nuclear Governance in South Korea"를 발표하였다. 10월 7일에는 대만 경제일보(Economic News Daily)와 대만 이클레이(ICLEI)의 초청으로 "Energy Efficiency Strategies in Seoul: An Essential Way for One Less Nuclear Power Plant"란 주제로, 2015년 10월 29일에는 중국 상하이시와 북단대의 초청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전환"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30일부터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2월 5일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캐나다 맥길대학, 한국 환경재단, 에코스피어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Tracking Adaptation Progress and Enabling Readiness란 주제의 부대행사(side event)에서 "Climate Adaptation Strategy and Readiness of Private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case of Seoul" 발표하였고 이어 12월 14-16일 사이에 호주국립대와 Earth System Governance 팀이 주관한 2015년 Earth System Governance 캔버라 학회: 인류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회복탄력성 (Democracy and Resilience in the Anthropocene)에 연사로 초청되어 Semi-Plenary V: Earth System Governance in Asia-Pacific Century에서 발표하는 등 6건의 해외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8건의 국내 학술행사에서 발표하였다.



윤순진 교수는 4권의 저서에도 공동저자로 참여했는데, 저서에는 IUCN에서 발간한 "Ethics and Climate Change: A study of National Commitments",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21세기 글로벌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 한국환경사회학회 총서의 하나로 한울아카데미에서 발간한 "환경사회학: 자연과 사회의 만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센터에서 주관하여 문우사에서 발간한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이 있다.

윤순진 교수가 사업팀장으로 있는 환경대학원의 BK 지원 사업팀인 기후변화 위험시대 회복탄성을 고려한 적응 전략 연구 사업팀은 2015년 9월 실시된 사업 중간평가에서 통과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팀은 2013년 9월부터 법/정책/행정 분야 BK 사업팀으로 선정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고, 지난 2년간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은 총 환산편수 38.32편,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은 환산편수로 총 13.37편, 발표실적은 총 4.95편이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이번 BK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질 높은 연구성과를 많이 도출할 계획이다.

윤순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인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는 2차년도 지속과제로 선정되었다. 쟁점별 현황파악과 거버넌스 발굴을 위한 기초·개발 연구를 주제로 2015년 11월 1차년도가 종료 된 이후 지속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2차년도(2016년 11월까지)에는 개발과 환경협력의 특정 분야에 관한 집중·비교를 주제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윤순진 교수는 또한 독일 콘라트아데나워재단의 한국사무소에서 발간하는 KAS Journal on Contemporary Korean Affairs란 정기학술지가 올해 특집 주제로 마련한 "Environmental Policy in South Korea: Problems and Perspectives"에 "Korea's Nuclear Policy - Past, Present, Future"란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난 9월 1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 4회 세계양봉대회(Apimondia 2015)에서 "Perspectives in traditional ecology and landscapes of Korea"라는 주제로 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전통생태학을 소개하고 산맥의 위계, 마을숲,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와 '우리'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관점의 잠재력과 한계를 소개했다. 이번 기조강연에서는 한국의 전통 경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조선 전도를 비롯한 각 도의 군현지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고지도(古地圖)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국외 연구진 및 방문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도원 교수는 지난 11월 6일 경상대학교에서 '산이 미래다-인문전통과 자연생태의 만남'의 주제로 개최된 명산문화연구센터 창립기념학술대회에서 '산이 낳는 물과 풍경'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우리나라 지하수 저장량 감소의 원인으로 늘어난 지하수 소비와 산림 녹화사업에 증발산 증가라는 사실을 외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가뭄에 취약해진 변화를 지적했다. 물 이용도와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문화적 혜택의 관계를 논의했다. 또한 유역의 수자원 보존 능력을 높이고 특히 아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우리의 당면과제와 함께 필요한 연구를 제안했다.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두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첫 번째는 "북한, 도시로 읽다"로 통일교육원에서 출간되었으며, 두 번째는 "도시와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사에서 펴냈다. 또한 9월 4일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있었던 한국행동과학연구소·한국미래학회 공동세미나 '발전과 행복'에서 "주거와 행복: 아파트 공화국의 미덕과 해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11월 4일에는 환경계획연구소 주최 학술 심포지엄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에서 "DMZ 지역 국가촌락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를 박사과정 이종겸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두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첫 번째는 “북한, 도시로 읽다”로 통일교육원에서 출간되었으며, 두 번째는 “도시와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사에서 펴냈다. 또한 9월 4일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있었던 한국행동과학연구소·한국미래학회 공동세미나 ‘발전과 행복’에서 “주거와 행복: 아파트 공화국의 미덕과 해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11월 4일에는 환경계획연구소 주최 학술 심포지엄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에서 “DMZ 지역 국가촌락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를 박사과정 이종겸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상인 교수**는 이번학기 다음과 같이 대중강연을 진행하였는데, 한국연구재단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에서 개최한 “공간으로 세상읽기”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이루어졌고, 행정자치부 ‘Global Village Fair’ 기초강연 “한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마을의 재발견, 공동체의 재설계”는 11월 1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울 YWCA ‘미래사회포럼’ “나홀로 사회의 도래와 도전”은 10월 24일 서울 YWCA 강장에서 열렸다. 이밖에도 전상인 교수는 9월 18일 한국마을학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에서 2016년 2월 26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위촉되었다.

-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2016년 개최되는 UN-Habitat III의 Policy Unit Expert로 선임되었다. UN-Habitat III는 리우, 이스탄불에 이어 20년만에 2016년 10월 에쿠아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데, Policy Unit Expert는 회의 아젠다를 준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최막중 교수는 국제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2016년판에 biographical profile이 소개되었으며, 8월 12~14일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UTM(University Technology Malaysia)에서 개최된 2015년 아시아 도시계획대학협회(APSAs, Asia Planning Schools Association)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2019년 APSA 국제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유치하였다. APSA 국제학술대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2017년 회의는 중국 칭화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막중 교수**는 9월 10일 선출된 ‘서울 도시계획 헌장의 헌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이 지켜나가야 할 원칙들을 정리한 것이다. 10월 5일에는 서울시에서 ‘한국 도시계획의 수출’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12월 23일 ‘도시 재생 한마당 2015’ 행사에서 ‘국가아젠다로서 도시재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또한 12월 23일 기공식을 가진 판교창조경제밸리의 MP(Master Planner)로 활동하였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조성되는 일명 ‘NEXT 판교’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는 중심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 교수인사

- 2015년 7월 1일 부로 환경계획학과 **오능환 교수**가 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자료실장 겸무)으로 취임하였다.
- 2015년 7월 1일 부로 환경계획학과 **김광중 교수**가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로 취임하였다.
- 2015년 7월 1일 부로 환경조경학과 **손용훈 교수**가 환경조경학과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5년 9월 1일 부로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가 환경대학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5년 9월 1일 부로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가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주임교수로 취임하였다.

## 석·박사과정



### 2014학년도 후기 졸업식

2014학년도 후기 졸업식이 2015년 8월 28일 금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30명(환경계획학과 19명, 환경조경학과 11명), 박사 11명(환경계획학과 8명, 협동과정 조경학 3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는 석사학위자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유재성, 이주형, 정해영, 환경조경학과 양유선, 신예나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 201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및 오리엔테이션

### 201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2015년 8월 28일 졸업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있다.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5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엄지연 학생(박사과정)과 환경조경학과 최대웅(석사과정)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맹희영(석사과정), 김주영(석사과정), 장동욱(석사과정), 환경조경학과 이지훈(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교통학 전공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5년도 2학기에는 정동재(박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학 전공 재학생 중 논문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한 학생 2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5년도 2학기에는 빌레그사이칸(석사졸업)과 이은주(박사수료)학생에게 수여되었다.

### 2015학년도 2학기 양과통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는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예년과 달리 환경대학원 신입생들의 융합과 연대 의식 강화를 위해,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 양과를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환경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총 33명(계획학과 21명, 조경학과 12명)과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윤순진 부원장, 양과 학과장 및 여러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학교생활 및 교과목 안내, 캠퍼스 투어, 2부에서는 학과를 통합하여 5개 조를 구성하여 조별 자기소개 PT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2층 P&C 홀과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3부는 음악대학 성악트리오의 축하공연과 함께 시작하여, 신입생들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재학생 및 교수님들과 친교를 나누었다.



## 여학생 휴게실 홍보

지난 2014년 10월 23일, 환경대학원에서는 82동 217호에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인 차이를 지니는 여학생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원내에 여학생 휴게실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입생들은 여학생 휴게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카카오톡, 원내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여학생 휴게실의 설치를 홍보하였다. 이로 인해 하루에 한 명도 채 사용하지 않던 휴게실에 이용자가 차차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고 기존 여학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모유 수유실을 확대 설치하기 위한 예산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환경대학원 역시 모유 수유실의 적절한 장소를 찾던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여학생 휴게실을 떠올리고 이곳에서 모유 수유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필요한 가구를 배치하였다. 이번에 구매한 품목은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주전자 등으로 실질적으로 모유 수유에 필요한 물품이 비치되어 기존 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학생회는 여학생 휴게실·모유 수유실 사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가을맞이 등반대회

2015년 10월 31일, 학생회에서는 가을을 맞아 재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단풍절정시기를 맞이하여 방문한 관악산에서 가을 단풍의 경치를 즐기며, 바쁜 학업에 지친 심신을 쉬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등반대회는 서울대학교 정문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호수공원, 연주대, 연주암을 경유하는 경로로 진행이 되었다. 날씨가 다소 추웠지만, 학생회에서 준비한 핫팩으로 학생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기분 좋게 산에 오를 수 있었다. 연주대에서 먹는 김밥과 초콜릿은 정말 일품이었다. 이 등반을 통해 동기끼리의 단결뿐만 아니라 선후배간의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환경대학원 옥상양봉 동아리 ‘비콜로지: Be-ecology’



환경대학원 옥상양봉 동아리인 '비콜로지'는 환경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옥상양봉 꿀벌의 채이활동 연구를 지난 9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양봉 대회(Apimondia 2015)에서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환경대학원의 친환경 양봉 프로젝트인 비콜로지를 알리고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과 꿀벌을 비롯한 수분매개충 연구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학술 발표 연구 주제는 Ecological Alternative: Effects of Rooftop Garden on Foraging of Apis mellifera in Urban Landscape로서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독특한 경관 맥락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중심으로 꿀벌들의 채이활동(foraging activity)을 살펴보았으며, 서식지 파괴, 먹이 자원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군집붕괴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 CCD)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생태적 대안이 되는 도시양봉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지난2014년 Science에 "Wild pollinators enhance fruit set of crops regardless of honey bee abunda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 저명한 학자인 The National University of Rio Negro의 Dr Lucas Garibaldi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연구에 대한 코멘트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 설정에 대한 뜻 깊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비콜로지 뉴스레터는 환경대학원 홈페이지(<http://gses.snu.ac.kr>) > 뉴스 및 행사 > 오픈강의(하늘&땅의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 환경대학원 해외 유학생의 대학원 생활

환경대학원은 외국인 입학전형을 통해 매 학기 6~10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북미와 아프리카 국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환경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이 경험하는 환경대학원을 소개하기 위해 오기 학생의 환경대학원에서의 유학 생활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3학기생 Tsolmon Undrakhbayar(몽골)입니다. 학교에서는 '오기'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14년 9월부터 환경대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현재 윤순진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한국 생활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학 오기 전에 몽골에서 한국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소통(가끔 못 알아듣는 단어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KGSP)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장학생들을 국립국제교육원(NIIED) 또는 각 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OIA)에서 한국 생활 관련해서 상담도 해 주고 학교 일정 공지(수강 신청, 기숙사 신청 등)를 잘 해 줍니다. 덕분에 한국 생활, 학교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 선배들, 학생회 임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시피 몽골은 개발도상국이고 교육 수준도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교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수업에서 토론할 때입니다. 어려운 주제로도 정말 멋지게 토론을 해 나가는 한국 학생들을 보고 겁부터 납니다. 이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공부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거의 끝나 갑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몽골로 돌아간 몽골 언니 오빠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졸업할 때가 오더라~"하고 말했던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이 말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빨리, 빨리~"

처음 유학을 결심한 그 마음과 학교 입학할 때의 다짐과 설렘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멋진 동기, 선배, 학생회 임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올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SGS 32기 출범

지난 9월 17일 목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제32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김광중 주임교수는 국토, 도시, 환경 분야가 맞이하는 도전과 과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포럼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의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을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으로 새로이 개편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최막중 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혁신을 통해 명품강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펠로우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주임교수로 최 열 환경재단 대표, 백운수 미래E&D 대표가 함께 과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32기는 전, 후반기 총 18주 동안 30세션의 교육과 국내답사와 해외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학생, 동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프특강도 마련하여 우리 분야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걸맞는 비중 있는 특강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전반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프특강 I 대한민국 변화의 특징과 공간적 함의 - 시간(時觀) 장관(場觀)의 통합적 접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기부장관
2 전환기에 생각하는 도시·건축의 새로운 요구	윤세한 해안건축대표
3 세계화·지방화 시대/다품종·소량생산 시대 공간 가치 창출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4 스마트 그린시티 - 그린웨이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도시설계 전략	김기호 명예교수
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이희연 교수
6 도시와 주택의 미래 전망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7 오프특강 II 서울시 도시재생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모델	변창흠 SH공사 사장
8 한국 도시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 - 수원시 경험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
9 숲과 신재생에너지 도시, 안산 만들기	제종길 안산시장
10 유럽의 눈으로 본 한국 도시	이석정 교수
11 도시 환경과 경관의 문제	서예례 교수
12 해외도시개발에 있어 한국의 역할	안건혁 명예교수
13 북한이 국토 도시 분야에 주는 기회와 과제	이상준 국토연 센터장

후반부에는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 문화, 국토환경, 부동산정책 등을 주제로 12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32기에 참여하는 31명의 Fellow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상구(공간정보연구원 실장), 강상범(정원프라임 부사장), 강지운(짐앤홀스코리아 대표이사), 김광석(SH공사 경영지원처장), 김승준(서울시청 에너지시민협력과 주무관), 김창모(안산시청 산업지원본부장), 박재우(해안건축 본부장), 박창덕(前은행연합회 조사부 조사역), 백운회(기동안전 대표이사), 백형춘(인천성암신탁 이사), 변영섭(경기도청 건설안전과장), 신선숙(엔엠에스 대표이사), 양윤철(코오롱 상무), 연병호(보미종합건설 소장), 우승현(동양건설산업 대표이사), 윤갑석(광운대 공간연구소 연구원), 윤세웅(세계자연기금 대표), 윤진옥(한국문화경관연구소 대표), 이경훈(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상용(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복(에스비이엔씨 대표), 이정화(서울시청 도시계획과장), 이종식(HDC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임진우(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순명(서울시청 중앙물재생센터 전문관), 정홍섭(다짐 부사장), 조성원(상아디자인 대표), 지진호(뉴그린 창신 전무이사), 한인수(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 선임지점장), 홍동환(SH공사 주거복지단장), 황일권(지케이엔지 이사)



## SGS 32기 | 국내시찰

32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9월 19~2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송도 신도시와 인천 내항 일대 구도심을 다녀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의 '인천 글로벌 비전의 추진과정과 교훈'이라는 강연이 마련되어 펠로우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김광중 주임교수를 비롯한 2명의 펠로우가 함께하였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청의 협조를 받아 경제개발자유구역의 추진성과와 과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구현 모습, 구도심의 재생 전략과 추진 현황을 등을 살펴보았다.



## SGS 32기 | 오픈특강 I

9월 24일에 32기의 개강행사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변화의 특징과 공간적 함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토론자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가 참석하였고, 32기 과정생, 선배 펠로우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 재학생도 함께하는 오픈특강으로 마련되었다.

강연에서 김진현 이사장은 한국이 광복과 한국전쟁,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며 해양화 전략을 통해 근대화 혁명을 이루었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는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대결-충돌의 단층지대 반도성'에서 '가고-조정'의 중심지대 반도성으로 승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사회 각 부문 간 조화와 융합을 통해 한국의 급속한 성장이 가져온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초청한 조명래 교수는 한반도가 큰 스케일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인구나 부가 집중되는 공간의 극단화를 경험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 소외되어온 지방과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상인 교수는 그 동안 한국 도시들이 양적 발전에 치중하면서 야기된 많은 문제들을 공학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도시연구에 있어 인문사회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0월 22일에는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모시고 '서울시 도시재생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주제로 두 번째 오픈특강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최성태 성북구 도시환경 국장과 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변창흠 사장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SH공사를 비롯한 공공이 공공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자산, 문화, 역사에 기초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으로 참여한 최성태 국장은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각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창무 교수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부재지주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것을 지양하고 세입자를 포함한 현 거주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나 단독·연립주택 관리사업에 있어서 SH 공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민환경대학

### 시민환경대학 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 8기 시민환경대학 수료생 대표 김태일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자

시민환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민환경대학 수업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소개와

에너지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이었습니다.

그 예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대량생산 및 대량 소비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산림벌채 및 인위적인 가스합성 등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징후는 강연을 듣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환경교육에 알맞게 편성되었으며

수준 높은 교수님들의 열강은 수강생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매우 보람 있고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환경대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겠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호하자는 슬로건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김태일 드림



## 동문소식

8

### 동창회

## 동문 홈커밍 행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에 부활한 동문 홈커밍 행사가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한데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 사이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5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 행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동창회가 주최하였으며,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동창회 및 올해로 졸업한지 40, 30, 20, 10년이 되는 환경대학원 75, 85, 95, 05학번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홈커밍 행사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식행사의 직전에 각 전공별 행사를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동문들 사이에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홈커밍 행사의 세부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공별 행사

- 13:30-17:00 조경 및 도시설계·융·복합 세미나 및 총회
- 14:00-17:00 교통전공·동문친교행사: 탁구대회 및 등반대회
- 14:00-17:00 환경관리·서울환경포럼세미나: 환경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
- 15:00-17:00 도시 및 지역계획 Talk Concert: 도전의 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기부자와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

- 17:15-17:45 발전기금 Wall 업데이트 행사

### 만찬

- 18:00-18:30 저녁식사 및 명예교수님 3분 스피치

### 공식행사

- 18:00-18:30 개회사, 환영사, 전공별 동문활동 소개 및 김안제 명예교수님 특강

### 친교의 시간

- 19:30-20:30 재학생 환영공연, 주관기수 인사, 행운권 추첨  
아트센터 나비: 아외미디어아트 전시



본격적인 홈커밍 행사에 앞서 각 전공별 행사를 실시했다. 조경 및 도시설계전공은 융·복합 세미나 및 총회를 진행했으며, 환경관리전공은 서울환경포럼 세미나,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은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특히 교통전공에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탁구대회와 등반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토너먼트 대회로 진행된 탁구대회에서는 박사과정 박찬운이 우승하였고, 등반대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연주암까지 등반에 성공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교통전공 전공 교수, 교통전공 졸업생, 교통전공 재학생을 포함하여 약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조경 및 도시설계, 환경관리,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1. 학교소식 2. 행사/학술/연구의 각 전공의 학술 활동에 소개되어 있다.



또한 식전행사로 2층 P&C Hall에서 기부자와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발전기금 Wall을 업데이트하는 행사로 이영성 환경계획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이영성 학과장의 발전기금 Wall 및 기부자 우대계획 소개로 이어졌으며,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30기, 31기 및 이완영(도시 80, 환경대학원 동창회장), 안계동(조경 79, 동창회 수석부회장), 송두영(최고위과정 22기, 동창회 부회장)을 비롯해 총 20개의 기부자 명패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다.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동문 홈커밍 행사에 참석한 여러 동문들의 인사 및 소개로 이어졌다.



공식 행사는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95학번 기수대표 강창덕 동문(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저녁식사와 함께 양병이 명예교수님의 3분 스피치로 연결되었다. 공식 행사는 이완영 동창회장의 개회사,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축사, 2014년 홈커밍 행사에 크나큰 공헌을 해주신 작년 행사의 주관전공 안계동(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대표), 안승홍(조경 94, 환경대학교 교수)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전공별 활동 상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별 활동소개 발표는 올해의 주관전공인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대표 변창흠(도시 88, SH공사 사장), 교통 전공대표 박상섭(교통 84,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대표 안계동, SGS 동창회 사무총장 최송휴(최고위과정 22기, 대한통운(주) 이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순서는 내년도 홈커밍을 주관하게 될 환경관리 전공대표 조경두(환경 86,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가 각 전공 76, 86, 96, 06학번과 함께 다음 홈커밍 행사의 준비계획을 발표하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공식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김안제 명예교수님의 유쾌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진 친교의 시간은 장소를 옮겨 옥상정원 하늘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가을 저녁하늘을 배경으로 노소영 동문(도시 93)이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에서 로봇 해카톤 <H.E.ART BOT(Handcraft Electronics Art Bot)> 이란 주제로 작업한 미디어 아트 전시물이 소개되었다. 김안제 명예교수님의 건배 제어로 시작된 친교의 시간은 재학생들의 환영공연으로 이어지며 한껏 고조되었다. 환경조경학과 김서린, 환경계획학과 김충원의 랩 공연 '우리 지금 만나'와 레드벨벳팀(환경계획학과 권아영, 차지연, 김근하, 이승철)의 댄스공연 '행복'은 신입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재학생들 특유의 재기발랄함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마지막 행운권 추첨에서는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05학번 기수대표 차민태 동문(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예산부 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높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경품을 받은 동문들의 인사말을 끝으로 즐거웠던 이번 홈커밍 행사도 막을 내렸다.



## SGS 동창회 하계해외답사

SGS 동창회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여름 휴가기간에 세계 도시·환경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환경대학원 최막중 원장의 인솔 하에 SGS 동창회 펠로우들과 가족 등 30여명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작지만 역사·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독일 중소도시들을 다녀왔다. 주요 답사지는 다음과 같다.

- 반목조주택의 천년 고대도시 | 고슬라\*, 쾰른부르크\*
- 중세교회의 고딕도시 | 레겐스부르크\*, 아우구스부르크, 울름, 슈파이어\*
- 루터의 종교개혁 도시 | 비텐베르크\*, 아이젠나흐\*
- 라인강 계곡의 고성들 | 마인츠~코블렌츠(고성 숙박)
- 학문 전통이 빛나는 대학도시 | 괴팅겐, 튀빙겐
- 바우하우스 건축 도시 | 뉘른베르크
- 바그너 오페라와 나치의 영욕 도시 | 바이로이트\*, 뉘른베르크
- 근대 산업화와 통일을 선도한 음악도시 | 라이프치히
- 독일 자동차 메카도시 | 폭스부르크(폭스바겐), 슈트트가르트(메르세데스 벤츠)
- 현대 미디어 미술관 도시 | 칼스루에
- 브레겐츠 페스티벌 | 콘스탄츠 호수위에서 펼쳐지는 투란도투 오페라 관람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 SGS 동창회 골프회 월례회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이천의 실크밸리GC에서 SGS 동창회 골프회의 2015년 마지막 월례모임이 있었다. 이문구 골프회장, 강석웅 30기 골프모임 대표(타드 대표이사), 이상진 31기 골프모임 대표(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지진호 32기 골프모임 대표(뉴그린 창신 전무이사)를 비롯한 월례회원 16명이 함께하였으며,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제32기의 펠로우도 함께하여 크게 환영을 받았다.

2016년 SGS 동창회 골프회 월례모임도 올 해와 같이 3월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에서 좀 더 가까운 골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환경대학원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 참가문의

SGS동창회 골프모임 이문구 회장(20기, 다짐 대표이사 (010-5223-0867))

조은혜 사무국장(29기, 승보디자인 대표 (010-2218-8724))

김완중 사무국장(30기,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사 (010-6260-6234))

##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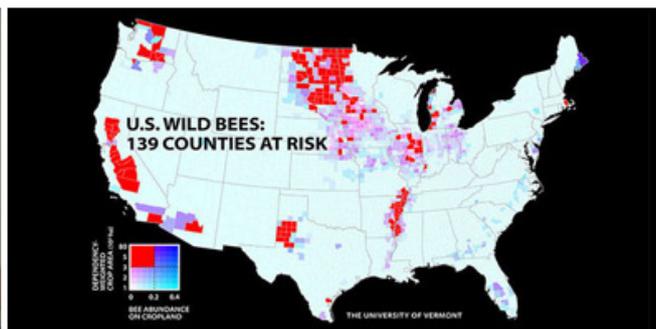
- **안동만**(조경 1회) 서울대 명예교수는 9월부터 한호친선협회장을 맡아, 호주에 관심, 연구 있는 모든 분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이메일 [ahntm@snu.ac.kr](mailto:ahntm@snu.ac.kr)로 받고 있다.
- **박경자**(조경 9회, 협동과정 박사 8회) 사단법인 전통경관보전연구원 원장은 지난 12월 10일 “한국의 정원”을 출간했다. 박경자 원장은 평생을 한국의 전통 정원 연구에 천착해 온 이방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이번 책은 연못과 가산을 중심으로 정원 구조물, 정원 건축물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정원 구조물 및 건축물은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계 속의 한국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정원”은 우리나라 전통 조경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197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저자의 40여 년 한국 전통 정원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역저이다. 그동안 한국 전통 정원과 관련한 서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통 조경의 구조물에 초점을 맞춘 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돋보인다. 이 책은 한국 정원을 20개의 주제, 즉 숲대·장승, 옛길, 누정(누정, 모정), 문(일각문, 홍예문, 사립문), 담(울타리, 담장), 삼국·통일신라시대 연못, 조선시대 연못, 기타 연못(지당, 연당·연지·하지, 방지), 물 흐름(비천, 계간, 간수·석간·송간, 폭포), 석조, 우물, 가산(석가산, 목가산, 옥가산, 과석), 장독대, 굴뚝, 석등, 화계, 밭(약포, 채포, 꽃밭인 화오), 옥외계단, 석수, 마당과 정원 식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정원 / 박경자 지음 / 서교출판사 / 2015 / 359쪽)

- **정종관**(계획17회)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월 3~7일 부탄 파로(Bhutan Paro)에서 열린 국민총행복 컨퍼런스(GNH Conference)에서 “충남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박창권**(조경 17회) 공간도시(SGK) 인터내셔널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주)공간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할 경력과 캐나다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래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과 도시를 추구하면서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례를 남기고자 새롭게 캐나다 캘거리 본사 및 한국지사를 개설하였다.
- **배소연**(계획 박사 28회) 국립생태원 연구원은 매년 세계적 인물 5만여 명을 선정하여 악력과 업적을 등재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6(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에 등재되었다.
- **고인수**(계획 37회, 박사 24회) 미국 버몬트 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은 미국 전역에 걸친 야생벌 수도(abundance)의 경향을 지도화하고 이 야생벌이 제공하는 수분서비스의 감소가 미국 내의 농작물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12월 22일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게재되었다. 고인수 박사는 이 연구에서 토지 이용에 따른 야생벌 수도의 시계열적 변화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공간 서식지 모형(spatial habita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내 농경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과 야생벌 공급량 간의 불균형이 전체 농경지의 39%에서 확인됨에 따라 야생벌 보전을 위한 과학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현재 연구의 중요성이 입증되어 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글, 그림 | The Huffington Post 기사 참고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bee-populations-decline\\_567ab35de4b014efe0d7979f](http://www.huffingtonpost.com/entry/bee-populations-decline_567ab35de4b014efe0d7979f)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동정

- **문국현**(SGS 7기, SGS 동창회장)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한솔섬유 대표의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 홍콩중국상회는 공동으로 제7차 세계 윤리 경영(한국)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윤리 경영 -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었으며, 10월 27일(화)과 28일(수) 양일간 롯데호텔 잠실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되었다. 문 회장은 SGS동창회 펠로우들의 국제교류에 도움을 드리고자 펠로우 20여명을 초대하여 함께 하였다.
  - **김기숙**(SGS 15기) 사단법인 자연사랑 회장이 육림의 달인 11월 7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테라피단지 내에서 제2회 통일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긴 가을 끝에 단비가 오는 가운데 실시된 통일나무심기 행사에 청소년 및 가족, 자연사랑 전국회원 등 250명이 참가해 6년산 비타민나무 1천주를 심었다. 작년 12월에 "통일 한반도를 나부터 먼저"란 슬로건 아래 출범한 '대한민국 통일희망 남북한 나무심기 운동본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20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나무사랑 동아리' 회원들, 청소년동아리 회원들, 일반시민 등 300명과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올봄 4월 11일에는 경북 영주시 소백산 테라피단지 내에 비타민나무 1천주를 심어 '제1호 자연사랑·나무사랑 동산' 조성했고, 통일염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어 2025년에 개봉하는 통일 염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바 있다.  
문의는 자연사랑 김홍석 국장 02-793-5114로 받고 있다.
- 
- **윤성선**(SGS 16기) 일산서구청장은 7월 13일 3급 부이사관인 시민안전교통실장으로 임명됐다. 윤성선 구청장은 고양 600년 가와지 법씨 복원 발굴 사업을 펼쳐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기술직 최초로 구청장을 역임하였다.
  - **이문구**(SGS 20기) 대표의 다짐건설은 '서울대학교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시설동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지난 7월 21일 기공식을 하였다.
  - **고병준**(SGS 22기) 새누리당 중앙위 사회복지분과 위원장은 11월 11일에 한국감사협회 전직감사모임 행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김석택**(SGS 22기) 동문은 2월말 울산시 발전연구원을 사직하고, 3월 부터 울산대학교 안전환경관련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지난 세월호사고와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울산 한화 케미칼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안전 환경 교육의 강화를 위해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 **유종국**(SGS 24기) 솔로몬산업 대표는 모범적인 기업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봉사와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선 것이 인정되어, 11월 10일에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융복합으로부터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수상했다.
  - **손혁재**(SGS 30기)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지난 10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손 원장은 지난 10월 22일 NGO학회와 광주시, 광주NGO센터,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 민간 합동 특별학술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의 리더십 비교'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지난 11월 7일에는 안산시에서 열린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에서 '지역정책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또한 10월 13일에는 수원시에서 열린 인간도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다.
  - **이진수**(SGS 30기) ㈜라움 대표이사는 지난 7월 21일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부산진구 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11월25일 부산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위촉되었다.

- **신현범**(SGS 30기) 닛시트로닉스 대표는 11월 27일에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회장 성증상)가 주최하는 '산학연 융합기술발표대회'에서 친환경 건축 소재(집성목재)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또한 닛시트로닉스는 최근 LED제품 쇼핑몰을 오픈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ecoledmall.co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이창수**(SGS 31기)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이사장은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와스 타디움 주차빌딩 3층에 4호 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이 발전소는 연간 약40만kw 의 전력을 생산하여 1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 12월 16일, 서울시의 승진인사 발표가 있었다.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을 재정비한 **이정화**(SGS 32기) 도시계획과장은 3급 승진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 과장으로 기술직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장(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 **임진우**(SGS 32기)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펜 수채화 개인전 '서울화첩'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Hall에서 있었다. '과거와 현재,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한양도성과 북촌마을'이라는 전시 부제에서 잘 드러나듯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건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한양 도성과 한옥마을을 찾아 스케치한 작품을 모아 연 전시회이다. 임진우 펠로우는 지난해 서울시의 요청으로 캘린더 제작에 작품을 재능기부하고 있으며, 한옥의 매력을 널리 알리게 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도 받은 바 있다. 임진우 동문의 정림건축은 '인천국제 여객터미널 프로젝트'로 2015년 우리나라의 설계분야에 BIM의 선진적인 적용을 하여 BIM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회사로 선정되어 11월 26일 빌딩스마트협회로부터 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세스코 터치 센터'로 제10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민간부문에서 11월 27일 환경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하였다.

## SGS 자치회 소식

- **SGS 18기 자치회**는 12월 21일 월요일 서초역 인근의 진도횃집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차광찬 회장(건우기술 대표), 오찬재 사무국장(해안건축 소장)을 비롯한 15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총회에서 종합건축사 사무소 에이그룹의 이민관 대표를 회장으로 추대하였고, 엠와이이앤씨의 김권욱 부사장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 **SGS 20기 자치회**는 9월 4~5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은골펜션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문구 회장(다짐 대표이사)을 비롯한 20여명의 펠로우가 함께하여 캠핑과 래프팅 체험을 통해 펠로우 간의 단합을 증진시켰다.



- **SGS 20기 자치회**는 12월 18일 금요일 역삼동 일일항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해안건축의 지승준 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하우드의 김대문 본부장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문구 회장(다짐건설 대표), 박래훈 사무국장(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을 16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으며, 그 동안의 모임을 돌아보며 좀 더 나은 내년을 기약했다.

- **SGS 28기**는 11월 20일에 송년회 겸 집행부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정광희 회장(우림헨스 대표)과 이상포 사무국장(정림건축 부사장)은 동기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동안 수고한 박봉규 회장과 백승기 사무국장(송보이앤씨 대표)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 **SGS 29기 자치회**는 12월 29일 화요일 유니버시아드센터에서 호두까기인형 발레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도원 교수, 이영성 교수, 이상현 회장(코스모전기 대표)을 비롯한 20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이어 인근의 미도미 참치로 자리를 옮겨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에이그룹내셔널건축사사무소의 유준호 대표를 차기회장으로 추대하였다.



- **SGS 30기 자치회**는 10월 24~25일, 1박 2일의 강릉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강완수 자치회장(대동녹지건설, 대아종합조경 대표)을 비롯한 20여 명의 펠로우와 가족이 참여해 메이플비치CC에서 운동을 하고,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 원장) 펠로우의 안내로 선교장, 경포대, 가시연 경포습지 등 강릉시 인근의 역사 문화자연 답사를 진행하였다.



- **SGS 30기 자치회**는 12월 18일 금요일, 서초구 잠원동 섭지코지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성종상 주임교수와 강완수 회장(대동녹지건설 대표), 전태호 사무국장(삼진엔피에스 사장)을 비롯한 20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 **SGS 31기**는 12월 8일 세빛둥둥섬 가빛섬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성종상 주임교수, 백운수 공동주임교수, 전상인 교수, 조진형 31기 자치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펠로우들이 함께하였다. 특별히 권수가 펠로우가 밴드를 통해 공유되었던 1,600여장의 사진으로 제작한 '행복했던 추억의 책장'도 보면서 한 해의 소중한 추억을 돌아보았다.



- **SGS 32기**는 총회를 거쳐 자치회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우승헌 동양건설산업 대표가 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강상범 정원프라임 부사장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펠로우들의 교류와 단합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 **SGS 32기**는 12월 5일 대구도심답사 행사를 가졌다. 32기 펠로우인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획으로 행사가 마련되었고, 김광중 주임교수 등 11명의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특별히 대구시 중구청의 김명주 관광개발과장이 '대구 근대골목투어 기반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강연과 현장 안내를 해주었으며 향촌문화관, 북성로, 진골목, 3·1만세운동길 등 약 6km의 도보 답사를 통해 근대화유산은 활용한 도시 재생의 현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 **SGS 32기**는 12월 7일 용인 프라자CC에서 송년골프모임과 강남 미가미 일식집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김광중 주임교수와 우승헌 32기 자치회장 등 펠로우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3기 모집 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활동으로 발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에 출범하는  
33기(6개월 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내년도 연간 계획을 구상하는 지금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시 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미래전략과정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 전화 880-8525 E-mail [sgs@snu.ac.kr](mailto:sgs@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